

# 國立大學의 學生 定員과 學科圖書室

鄭 腫 昨

(全南大 造景學科)

어느 大學이고 도서관이 없는 곳은 없지만 利用面에서 욕심을 부린다면 중앙도서관 외에 제2, 제3의 도서관이 적절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각 學科에도 圖書室이 설치될 수 있다면 매우 有益할 것이다. 대학의 質的 향상을 위해 國立大만이라도 學生 定員을 適正化하고 시설을 現代化하는 데에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 머리말

敎育法 제108조에 의하면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汎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敎수 연구하며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大學의 設立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行政的인 면과 敎育的인 두 면을 생각할 수 있다. 즉 後者의 경우에 있어서 敎授는 專攻分野에 있어서나 人格的인 면에 있어서 敎育者로서의 充分한 資質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 평소 學問에 陶辭해 있어야 하고 敎育에 熱과 誠을 다하며, 人格的인 면에 있어서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한편 大學의 行政當局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의실 내외의 敎育 환경을 잘 정비해야 하며 연구실, 실험 및 실습실, 도서실 등의 시설을 잘 갖추어 각각의 기능이 正常的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함에도 國立

大學의 경우를 본다면 量的으로만 팽창되어 있지 質的인 면에 있어서는 큰 進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學生 定員을 늘려 놓고 보니 質的인 低下를 가져 오고 있으며, 學科에 圖書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實驗· 實習室이나 강의실은 學生數를 收容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하고 불편하다. 新設學科인 경우에는 敎授 研究室이나 學科 사무실, 실습실 등을 適正數 배당 받지 못하여 큰 갈등 要因을 안겨 주고 있다. 만족이란 限이 없는 것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생각되는 學生 定員과 學科 도서실 문제를 중심으로 몇 마디 적어 보고자 한다. 本考에서는 전국적인 資料를 갖지 못하여 全南大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엮어 보기로 한다.

## 2. 定員의 適正化

어느 學科의 卒業定員을 책정하는 데는 敎育의

〈표 1〉 全南大의 卒業定員別 學科數 및 教授 1인당 學生數

구	분	학생 졸업 정원(1987학년도 입학생 기준)													학과수	교수수	학생수	교 1인당 학생수	학과당 평균 교수수	
		15	20	30	40	45	50	60	70	80	90	100	120	160						
공 농 자 약	대				9		1	1						1	1	13	93	2,634	28.3	7.2
	대				9		4									13	74	1,818	24.6	5.7
인 의	대				3		1	5		1					1	12	67	2,677	40.0	5.6
	대			2												2	11	264	24.0	5.5
인 사	대								1						1	16	280	17.5	16.0	
	대				6			1	4	1		2			8	65	3,610	37.2	8.1	
경 영	대										3				6	32			5.3	
	대					1									3	20	702	35.1	6.7	
예 술	대			1	1		1								5	30	1,849	61.6	6.0	
	대												3	1	3	24	471	19.6	8.0	
사 범	대														19	107	2,860	26.7	5.6	
	대	13	5	1																
계		13	5	4	28	1	8	10	5	1	2	4	2	2	85	539	17,165	31.8	6.3	
백	분	15.3	5.9	4.7	32.9	1.2	9.4	11.8	5.9	1.2	2.4	4.7	2.4	2.4						

註 1. 학생 수는 1986년말 제학생 수임.  
 2. 의대는 간호학과만 포함됨.  
 \*3. 의대 본과는 제외함.

能率, 卒業生의 需要度 그리고 學科의 運營 능력 등을 고려하는 듯하다. 文教當局에 의한 최저 기준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全南大의 경우를 보면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사범대를 제외한다면 최저 30 명에서 최고 160 명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人氣學科인 의과대(의예과)나 치과대, 경영대 등은 定員數가 100 명 또는 그 이상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설치된 電算統計學科도 時流를 타고 인기가 있어 100 명을 뽑고 있으며 人文科學大學의 國文學科와 英文學科는 90 명을 졸업 정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하에서 이와 같이 많은 수자의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敎育이나 人格 陶冶가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의과대의 경우는 설립된 지도 오래되고, 또 그 학문의 특수성 때문에 他學科에 비해 많은 敎授數를 확보하고 있어서(103 명) 기초 이론 敎育과 臨床 실습에 큰 지장은 없을 듯하나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敎員數와 實驗實習 시설 그리고 需要面에서 보더라도 學生 定員 40 명 이상은 무리라 보며 정상적인 敎育은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敎育이란 敎授와 學生 사이에 對話와 討論의 기회를 많이 가져 상호간에 거리감을

줄이고 學究熱을 높여 주며, 강의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發表의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하고 강의 내용이 잘 전달되어 理解度를 높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學生數가 많다 보면 敎授가 學生과 研究室에서 私的인 對談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學生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강의가 일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學生들에게 發表의 기회를 주지 못하여 敎育效果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學生數가 많은 學科일 경우 大學 4년 동안에 敎授와 私的으로 對談 한번 갖지 못했다는 學生이 부지기수라 불만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범대에 있어서는 13개 학과가 15 명을 졸업 정원으로 하여 新入生을 선발하고 있는데 敎育面에서 볼 때 理想的인 수자라 할 것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定員數는 이보다 몇 갑절 많았는데 수학교육과의 경우를 본다면 졸업 정원 100 명에다 130 명을 入學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卒業生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되자 1987 학년도에는 入學定員을 20 명으로 크게 감축하고 있다. 이는 졸업생의 수급 문제를 감안한 것이지만 國立大라면 1개 학과당 20 명 정도로 책정하는 것은 理想的인 것

이라고 생각된다.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40명 정원의 學科가 가장 많아서 全南大의 경우 전체의 32.9%에 이르고 있으며 工大, 農大, 社會大에 속해 있는 學科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0명 정원의 學科는 11.9%에 이르는데 自然大와 人文大에 많다.

이제 40명 정원의 學科를 중심으로 하여 教育 効果의 타당성 여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우선 學生 모두에게 研究課題를 주어 각자에게 15분 동안의 發表와 5분간의 토론 기회를 갖게 한다고 하자. 그러한 경우 40명 전원이 네 강의 시간마다 한번씩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40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3학점 단위의 주당 3시간 강의가 이에 해당되는데 한 학기당 총 강의 시간 수의 1/2을 차지하는 셈이 되어 教授의 강의 시간이 그만큼 제한을 받게 된다. 1학기당 3학점 단위의 실제 강의 시간 수를 총 36시간으로 본다면 그 3분의 1인 12시간을 學生의 연구 발표 시간에 배당한다고 할 때 1개 시간에 2명이 발표할 경우 24명의 學生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1개 학과당 20~25명의 정원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教科目에 따라서는 視聽覺教育이 필요하게 되므로 강의 시간 수는 더 제한을 받게 되며 他學科生이 그 교과목을 선택하여 受講者 수가 증대되면 강의의 效率性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他學科生의 수강자 수를 제한하거나 一定數를 초과하면 分班을 해야 하는데 운영 면에서 용이한 일이 아니다.

筆者가 속해 있는 造景學科에서는 製圖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강의실이다 製圖臺를 배치하여 강의와 실습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定員 40명이 이용할 수 있는 40개의 製圖臺를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教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2坪 教室(11m×7m)이 가장 큰 교실인데 무리하게 채운다고 해도 30개가 들어갈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도에 필요한 케비넷과 大型의 作業用 테이블도 넣어야 하므로 25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제안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25명 定員일 경우 副專攻이나 제2 전공을 하는 他學科生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

게 된다. 또 현재의 教員數에 근거를 두고 定員數를 고찰해 보자. 全南大는 1986학년말의 총 在 學生 수가 17,165명이며 專任講師 이상의 教員數는 539명으로 교수 1명당 32명의 學生을 담당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大學別로는 경영대가 가장 많아 교수 1인당 62명이며 자연대는 40명에 이른다.

大學은 本質적으로 정규적인 강의 시간 외에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교수와 관심 있는 學生이 한 그룹이 되어 함께 실험하고 답사하며, 잡지를 읽고 연구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이 理想的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수 1인당 學生 10명 내외가 적당하다. 그렇다면 4년제 大學에 있어서 20명 定員이라면(4개 학년이면 합계 80명) 교수 8명이 있어야 하고, 30명 정원이라면 12명이 필요하다. 좀더 크게 잡아 教授 1인당 15명이라 하더라도 1개 學科 30명 정원의 합계 120명의 全學年 學生에 대하여는 8명의 教授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效率적인 강의와 실습, 研究室別 學術 활동을 위해서는 1개 학과당 卒業定員은 20~30명 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教授數는 1개 학과당 8~10명 선으로 하고, 學科 運營費라든가 實驗實習費의 부족은 政府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助教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 3. 學科圖書室의 設置

어느 大學이고 도서관이 없는 곳은 없지만 利用面에서 욕심을 부린다면 중앙도서관 외에 제 2, 제 3의 도서관이 적절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각 學科에도 圖書室이 설치될 수 있다면 매우 有益한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관하여 몇 마디 적고자 한다.

평소에 많이 겪는 일이지만 강의 준비나 연구 중에 급히 찾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중앙 도서관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學科에 도서실이 있다면 능률 면에서나 시간 절약상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과도서관이란 事典類와 法典類, 便覽類, 圖面類, 그리고 관련된 專

攻分野의 국내·외 雜誌類와 학생들을 위한 참고 도서 등이 비치되어 있는 소규모의 도서관이며 전공학과 학생들을 위한 讀書室의 기능을 갖는다.

현재 대부분의 學科에 있어서는 圖書費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敎授 각자의 私費에 의하여 필요한 雜誌를 몇 종씩 구입하여 研究室에 비치하고 있지만 경제 사정 때문에 국·내외의 수많은 잡지를 망라하여 구입하기는 어렵다. 매일 새로운 情報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잡지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이다. 특히 서울과 먼 거리를 두고 있는 地方의 大學에 있어서는 緊要한 요소이다.

한편 圖書室은 讀書室을 겸해야 한다. 學問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實力을 向上시키는 方法 중의 하나는 專攻을 함께 하는 學生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공부할 수 있는 讀書室의 확보이다. 여기에서는 관련 있는 전문 서적과 잡지를 읽을 수 있어 學習 能率도 向上된다. 先後輩 사이에 유대를 강화하고 선배로부터 學問하는 方法을 배우며 소장되어 있는 중앙도서관의 장서 목록을 통하여 손쉽게 필요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 質과 量에 있어 敎室 단위의 圖書室도 現下 우리의 單科大學 도서관을 능가할 정도이며 부속된 큰 방에는 學生들이 밤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는 데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4. 맺는 말

오늘날의 大學은 質보다는 量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 地方에 있어서는 國立大가 道마다 3개 또는 4개나 설치되어 있지만 교육 환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다. 研究室과 敎室, 實驗室이 크게 부족하고 내부 시설이 現代化되기에는 요원한 感이 있다. 地方大學의 경우에 있어서는 學生數가 많다 보니 그 중에는 學究熱이 없고 低質인 學生이 섞이는 일도 있어 勉學 분위기를 파괴하고 師弟之間의 거리를 벌어지게 한다. 大學의 質的 向上을 위해 國立大學만이라도 學生 定員을 適正化하고 시설의 現代化에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地方大學만은 이러한 요구가 切實하다. \*